

세계적 양산의 환상적인 골프경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 인터넷회원 예약시
-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24일 포항체육관에서 열린 '2008 왕중왕역도대회'에서 장미란(고양시청·75kg급 이상)이 용상 2차시기에서 183kg을 들어올려 비공인 세계신기록을 수립하고 있다. /연합뉴스

### ■ 전남도민체전 사흘째

## 여수시 2연패 확정

유도·씨름 종합 1위...순천 추격 따돌려

25일 폐막되는 제47회 전남도민체전에서 여수시의 2연패가 확정된 가운데 중위권 다툼이 치열하다. 여수시는 대회 3일째인 24일 유도과 씨름에서 종합1위, 수영에서 종합 3위를 기록하는 등 전종목에 걸쳐 고른 득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2연패를 확정지었다. 또 여수시는 남자 축구에서 장흥군과 1-1로 비긴 뒤 추첨승으로 4강에 올랐으며 남자 탁구에서도 화순군을 꺾고 4강에 진출했다. 첫날 여수시와 각축을 벌이며 지난해 빼앗긴 종합우승을 탈환하기 위해 총력을 썼던 순천은 3~4위권으로 밀려나 광양, 고흥, 보성, 신안 등과 중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위에 올랐던 신안군은 5위

권에 진입하는 선전을 펼쳤다. 개인종목에서는 이미영(여·해남)이 육상 100m, 200m, 400m계주에서 3관왕에 올랐고, 수영 조아름(여·광양)과 서매화(여·광양)도 각각 3관왕에 빛나는 역을 펼쳐 광양시의 2위권 싸움에 힘을 보탬다. 이외에 육상에서 이준화(여수), 이정대(목포), 박상근(목포), 최영림(여·해남)은 각각 2관왕에 올랐다. 영광군은 태권도에서 지난 45회부터 47회까지 3년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해 '태권 영광'의 위상을 재확인했으며 오은숙(여·여수)은 육상 400m에서 40회부터 47회까지 8연패를 차지하는 기록을 작성했다. /최재홍기자 lion@kwangju.co.kr /고흥=주경기자 gju@kwangju.co.kr

## 장미란 비공인 세계新 '번쩍'

한국 여자 역도의 간판 장미란(25·고양시청)이 24일 포항에서 열린 2008 코리아컵 왕중왕 역도대회에서 용상 183kg을 들어 올리면서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 획득 가능성을 보여줬다. 용상 2차 시기에서 장미란이 기록한 183kg은 탕궁홍(중국)이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세운 종전 세계 기록(182kg)보다 1kg 더 나가는 중량이다. 지난 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자신이 세운 종전 최고 기록(181kg)보다 2kg이나 늘었다.

코리아컵 역도 용상서 183kg 기록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가능성 높아

더구나 올림픽을 앞두고 컨디션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출전한 대회라 이번 기록은 더욱 의미가 있다. 또 비공인 신기록을 작성하면서 큰 자신감을 얻어올려 적절한 벤치 전략으로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했다는 평가도 이끌어냈다. 오승우 여자 역도 대표팀 감독은 "장미란이 초반에 중심을 잃고 인상과 용상 각각 마

지막 시기에 실패해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희망을 보여줬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렇다고 베이징올림픽 때까지 무작정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최대 라이벌 무상상도 최근 중국 국가 대표선발전에서 비공인 세계신기록을 세웠기 때문이다.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무상상은 지

난 18일 중국 역도 대표 선발전에서 비공인 합계 세계 신기록 328kg(인상 145kg+용상 183kg)을 들었다. 장미란이 이날 세웠던 318kg보다 10kg이나 더 나간다. 한편 장미란의 용상 기록을 비롯해 이날 여자부 경기에서는 한국신기록이 무려 21개나 쏟아져 나와 베이징올림픽 메달 전망을 밝게 했다. "기록 제조기" 임정화(22·울산시청)는 48kg급 인상에서 세 차례, 용상과 합계에서 각각 두 차례 등 혼자서 7차례나 한국기록을 경신하며 우승했다. 한국 역도 기대주 윤진희(22·한국체대)도 53kg급에서 인상(99kg) 두 차례, 용상(123kg) 두 차례, 합계(222kg) 세 차례 등 모두 일곱차례나 한국 신기록을 바꿨다. /연합뉴스

## 신지에 "바람이 미워요"

중간합계 8오버 공동 14위

"너무 힘든 하루였어요. 일단 잘 먹고 잘 쉬 다음에 내일 경기에 나서야죠." 한국여자프로골프의 '지존' 신지에(20·하이마트)도 거센 제주 바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프로 데뷔 이후 최악의 스코어를 내고 말았다. 신지에는 24일 제주 크라운골프장(파 72·6천300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 MBC 투어 엠씨스퀘어컵 크라운CC여자오픈 둘째날 6오버와 78타를 적어냈다. 이로써 신지에는 중간합계 8오버와 152타로 공동 14위에 머물렀다. 신지에는 지난해 부산 아시아드골프장에서 치러졌던 KB국민은행스타투어 1차전 1라운드에서도 78타를 친 적이 있다. 나란히 3오버와 147타로 공동 선두에 나선 김보배(21·벤호건골프), 오채아(19·하이마트), 김소영(21) 등 3명에 5타차로 뒤져 대회 2연패와 시즌 3승, 그리고 2주 연속 우승에 빨간 불이 켜졌다. 특히 신지에는 마지막 3개홀에서 '지존'답지 못한 플레이를 펼친 것이 뼈아팠다. 16번홀(파3)에서 1m 거리의 퍼퍼트를 넣지 못한 신지에는 이어진 17번홀(파4)에서 10m 거리의 버디 퍼트를 무려 3m나 지나치게 치더니 파를 놓쳤고 18번홀(파5)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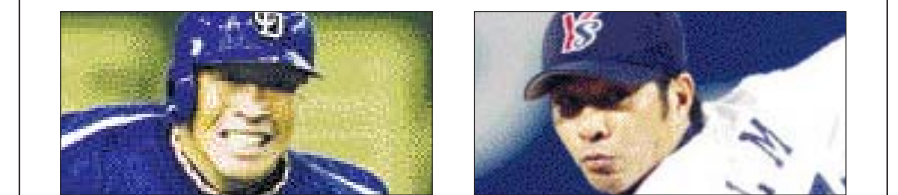
서는 그린 앞 벙커에서 친 세번째샷이 그린을 훌쩍 넘겨 또 1타를 잃었다. 국내 무대에서 3개홀 연속 보기는 처음이라는 신지에는 "3오버와 정도면 괜찮은 스코어였는데 마지막 3개홀에서 3타를 잃은 것은 아쉽다"며 입맛을 다셨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최종 라운드에서 7타차를 따라 붙어 역전 우승을 일궈냈던 신지에는 거리 조절이 더 용이하도록 헤드가 가벼운 퍼터로 교체해서 "승부수를 띄우겠다"고 말했다. 신지에 뿐 아니라 선수들은 모두 강풍에 힘든 하루를 보내야 했다. 단 한명도 언더파 스코어를 내지 못했고 1오버와 73타가 데일리베스트였다. 8번홀(파3·138야드)에서 송민지(21)는 180야드를 칠 때 사용하는 4번 아이언으로 때려 홀인원을 만들어 냈다. 신지에도 4번 아이언을 쳤지만 짧아서 그린 앞 벙커에 떨어졌다. 첫날 나홀로 언더파 성적을 낸 데 이어 이날 4오버와 76타를 쳤는데도 공동 선두를 지킨 김보배(21·벤호건골프)는 "74타 정도는 칠 수 있었는데 경기가 잘 안풀려 목표보다 2타를 더 쳤다"면서 "꼭 우승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연속 선두를 달린 김보배는 "삿보다는 정신력이 강해진 것이 좋은 성적을 내는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24일 제주 크라운골프장에서 열린 MBC 투어 엠씨스퀘어컵 크라운CC여자오픈 2라운드 경기 6번홀에서 신지애가 어프로치샷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 '마린보이' 박태환 오늘부터 강훈련

"마린보이" 박태환(19·단국대)이 베이징올림픽 수영 금메달을 향한 강행군을 다시 시작한다. 박태환은 24일 오후 태릉선수촌에 다시 소집돼 25일 오전부터 정상적인 훈련에 들어간다. 박태환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울산에서 진행된 동아시아대회를 마치고 사흘간 풀밭같은 휴식을 즐겼다. 자유형 400m와 200m에서 연거푸 아시아 신기록을 수립한 뒤 노민상 수영대표팀 총감독으로부터 '특별휴가'를 받았다. 지난 2월 말 수영대표팀의 말레이시아 전지훈련부터 시작해 50여일 간 외박을 딱 하루밖에 못 받고 지옥훈련을 한 것에 대한 배려이기도 했다. 이제 올림픽까지 남은 기간은 100일 가량. 동아시아대회 직후 몸 상태를 실전에 맞춰주기 때문에 박태환은 1주 정도 기초 지구력훈련을 한 뒤 5월 말까지는 스피드훈련이 가미된 특수지구력훈련을 한다.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스피드훈련을 한다. 지구력을 가다듬었으니 훈련의 초점은 기록단축에 맞춰지는 것이다. 노민상 감독은 "앞으로는 더욱 강한 훈련이 기다리고 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외박·외출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오로지 훈련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베이징올림픽 뛰겠다"

### 이병규·임창용 긍정적 반응

일본프로야구 센트럴리그에서 시즌 초반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병규(34·주니치 드래곤스·왼쪽)와 임창용(32·야쿠르트 스왈로스·오른쪽)이 베이징올림픽 대표팀 합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내년 3월 열리는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앞두고 일본야구 기구(NPB)와 협의차 일본을 방문 중인 이상일 한국야구위원회(KBO) 운영본부장은 23일 나고야에서 이병규를 만난 데 이어 24일 밤에는 히로시마로 이동, 원정경기를 뛰고 있는 임창용과 접촉했다. 이상일 본부장은 "이병규와 만나 지난날 베이징올림픽 최종예선 대표팀 선발과 관련해 쌓였던 오해를 풀었다"면서 "베이징올림픽, WBC 등으로

술한 국제 대회가 있는데 KBO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며 사실상 대표팀 합류를 권했고 이병규로부터 "잘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지난해 12월 대만 타이중에서 열린 베이징올림픽 아시아예선 때 태극마크를 달았던 이병규는 그러나 당시 성실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줬을 뿐 3월 최종 예선 때는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KBO는 이 때 생긴 앙금을 깨끗이 지우고 대표팀에 꼭 부르기 위해 이병규와 만났다. 이 본부장은 24일에는 일본 야구에 성공적으로 적응을 마친 야쿠르트 '수호신' 임창용과도 만나 비슷한 제안을 했다. 150km대 빠른 볼을 앞세운 '맹작구'로 강한 인상을 심고 있는 임창용은 2003년 삿포로 아시아선수권대회 이후 5년 만에 대표팀 승선에 도전한다.



## 찬호 "안 풀리네"

### 10이닝 1실점 후 교체

미국 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 볼펜 투수 박찬호(35)가 1이닝 동안 1점을 주고 교체됐다. 박찬호는 24일 캘리포니아주 LA 다저스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에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홈경기에서 6-1로 앞선 6회 선발 데리 로에 이어 두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다. 1이닝 동안 안타 2개와 볼넷 1개로 1점을 허용한 뒤 7회 무사 2,3루에서 조 바이럴로 교체됐다. 신시내티전에서 3이닝 동안 51개를 던져 행운의 세이브를 올린 뒤 이를 만에 등관한 박찬호는 첫 타자 크리스 영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산뜻하게 출발했다. 2사 후 올랜도 허드슨에게 안타를 맞았지만 후속 코너 백스를 3루 땅볼로 처리하

고 이닝을 마쳤다. 그러나 7회 선두 마크 레이놀즈를 볼넷으로 내보내면서 일이 꼬였다. 후속 저스틴 업튼에게 이날 가장 빠른 시속 150km짜리 볼을 던졌다가 우선상 2루타를 맞고 2,3루 위기에 봉착했다. 다저스는 이 상황에서 박찬호를 감관시켰고 구원 바이팔이 1사 후 크리스 스나이더에게 좌전 적시타를 맞고 1점을 주면서 박찬호의 자책점으로 기록됐다. 다저스는 8-3으로 승리를 거뒀다.

**골프·연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특필리 회원권**

다저스 '특필리 회원권'이 성공적으로 매각된다는 소식을 접한 한국인 투자자들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성공에 앞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거래소가 되었습니다.

문의: 1062)351-0095